

365일 꿈을 나눕니다  
희망채널 광주MBC



광주MBC 트릭아트 13억 중국시장 진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 2012국제3D마환(魔幻)예술중국특별전

• 항주 2012.6.30~8.5 • 가흥 2012.8.25~10.7

• 임평 2012.10.13~10.30 • 이수 2012.11.8~12.16

2013년까지 화동지역 주요 도시 순회 전시

## 광주MBC가 만드는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 마을이야기 올망졸망 밴드 윈디시티의 김반장과 트로트가수 은희정의 좌충우돌 체험과 농촌 희망곡!!
- 문화콘서트 난장 순도 100% 라이브공연, 뮤지션의 숨결까지 느끼는 생동감 넘치는 음악무대!!
- 우리가락 우리문화 윤진철 명창과 가수 이안이 함께하는 전통과 현대의 소통과 공감의 장!!
- 시사르포 여기는 지금 성역 없는 비판과 고발,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현장 리포트!!!



## 광주문화방송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16번길17(월산동) • 대표전화 062-360-2000 • 홈페이지 <http://www.kjmbc.co.kr>



## 정관개정안 확정 내년 2월 총회거쳐 시행

회장은 3년 단임,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등은 1회 연임 가능

11월14일 임시회장단 회의에 보고 MBC사우회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이용구부회장)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사회와 내년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 정개소위는 그동안 진지하게 토의했던 내용 가운데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한편 회장은 단임, 상임부회장과 총무이사는 직책에 관계없이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임원이 본회의 목적과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

자격은 1년이상 MBC 정규직 사원으로 재직한 자로 강화했다. 이에따라 MBC 퇴직 사원 가운데 당장 사우회 가입을 원하고 있는 10여명이 사우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는 이와함께 정조규정도 일부 고치기로 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회갑 축하금을 현재의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대신 팔순(산수)때 축하란 대신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구순(90세)과 백수



올 가을 한동안 못보던 사우회들의 뭍은 얼굴 뵈어요

### - 골프대회 : 10월 5일 중원 골프클럽

우승 이두표, 행운상 이대우, 감투상 전춘옥  
가을철 골프대회에 10개팀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도 신페리어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프로급 실력을 과시하면서 74타를 친 이두표(업무)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고, 사우회에 가입하자마자 첫 출전해 80타를 기록한 이동한(관리)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그의 전성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 근접상은 박근학(관리), 행운상은 이대우(보도), 감투상은 전춘옥(관리) 회원에게 돌아갔다.

### - 낚시대회 : 10월 12일 강화 선두포 수로

단 3마리 낚는 최악 조황 - 모두가 입상  
낚시클럽 발족이후 최악의 조황을 기록하고 납회했다. 이번 가을철 낚시대회에는 30명 회원이 참가해 단 3마리를 잡았다. 그나마 위로가 된것은 월척이 나왔다는것. 송재선(업무) 회원이 30.3cm짜리 붕어를 잡아 월척과 함께 1등을 차지했다. 송회원은 최근 3개대회에서 1등 2번, 2등 1번을 기록하는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권오용(편제) 회원이 25.5cm짜리 붕어를 잡아 2등을 차지했고 김후선(보도) 회원은 14.5cm짜리 베스를 잡아 행운상을 받았다. 노서울 이만우 고문을 비롯해서 조동호 안호선 김세중 박태환 이정오 이한익 강창우 회원등 조력 3~40년의 베테랑들이 썩 한번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더라 아쉬워했다. 이같은 초라한 성적을 두고 "물이 차가웠다 - 물이 빠져 수심이 너무 낮았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다. 한편 인천병원에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홍순영회원이 낚시가 하고 싶어 아들을 대동하고 대회에 참가한후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다.

### - 등산대회 : 10월 31일 만산홍엽 북한산 둘레길

80명 참가 78명 완주 - 겨울 등산장갑 선물  
가을철 등산대회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80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등산대회는 오전 10시 서울 수유동 화계사입구 한신대학교대학원을 출발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음미하며 화계공원지킴터, 구름전망대, 빨래골, 북한산생태숲공원, 정릉청수장에 이르는 북한산 둘레길 3구간 4.1Km의 코스에서 진행됐다. 참가자 80명 가운데 78명이 완주했다. 올해 구순인 노서울 고문도 타고난 건강을 과시하듯 거뜬히 완주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한성 등산클럽 회장은 지난 8년간 등산클럽을 이끌면서 회원증가와 클럽활성화에 힘써온 김진호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사우회에서는 폴라텍 겨울철 등산장갑 한 켤레씩을 참석자 전원에게 선물로 증정했다.

### - 원로회원 산업시찰 : 월성 원자력발전소 견학

70대 41명 첫 참여, 앞으로 원로 중견 나눠 실시  
올 하반기 원로회원 산업시찰이 11월8일과 9일 이틀동안 대전, 경주, 월성에서 실시됐다. 이번 산업시찰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사우회 사무처는 봄철 산업시찰 때 약속한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산업시찰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로 팀을 구성했다. 이에따라 최호룡 前MBC미디어텍사장을 비롯해서 1937년생부터 1941년생까지 70대초반부터 중반에 이르는 41명의 회원이 이번 산업시찰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사우회 사무처는 앞으로도 봄철 산업시찰과 가을철 산업시찰을 원로회원과 중견 회원들로 참석자를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참관기 3면

## MBC 1년이상 근무 정규직원 언제든 사우회 가입

### 정조규정 개정, 환갑 팔순 20만원-구순 백수 축하란

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자세와 품위유지를 강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MBC를 퇴사한뒤 1년 이내에 사우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폐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느 때나 사우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가입

(99세)때 축하란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우회 사무처는 11월14일(수)에 열린 임시 회장단 회의에 정관개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관개정(안)은 차후 이사회와 2013년 2월 회원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

## MBC사우회 2012년 송년모임

12월13일(목) 마포가든호텔, 본사선물과 다이어리수첩 증정

MBC사우회 송년모임이 12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서울 마포에 있는 가든호텔에서 열린다. 올 송년모임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석자 모두에게 MBC에서 준비한 선물과 2013년도 다이어리 한권씩을 증정할 예정이다. 사우회 사무처는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200만 고객 돌파 기념

2,000,000

2·20·200 EVENT  
2012.11.1~11.30

2 성인 2명이 오면 1명은 무료!  
성인1명 유료 결제 시 동반성인1명 무료  
(자비한 사람은 홈페이지 참조)

20 매일 각 체험시설 20번째 고객께  
KZ캐릭터 선물 증정!  
캐릭터 선물 : KZ 아트 포스트잇

200 200만번째 행운의 주인공에게 키자니아 1년 무료이용권 증정!  
BC카드가 키자니아 200만 고객 돌파를 축하합니다!  
BC카드 결제 고객 중 200명께 추첨을 통해 2인 가족 초대권 증정!  
중앙광장에서 응모함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KidZania**  
Seoul

www.kidzania.co.kr | 1544-5110



사우회보

나는 꿈을 쫓다

임국희 사우회 감사



아시겠지만 사우회사무처 사무실은 전MBC 정동사옥 10층에 있다. 나는 1년에 서너번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그날은 살짝 마음이 설렌다. 지금 구 정동사옥 앞에 서면 정동사옥 근처의 덕수궁 돌담길, 고려병원(현 삼성병원) 뒤, 이탈리아노, 정의집, 고구려 다방, 문화체육관, 하남호텔, 영덕정, 천우식품, 광화문 뒷골목 수제비 집, 갈치조림 집 등등 정들었던 집들은 지금 거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모두 방송에 미쳐서 여의도로 완전히 이사 간 8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날짜로 치면 약 5900일을 일요일 없이 풀타임으로 뛰었다. 그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나뿐일까. 5900일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같

은 시간에 꼬박꼬박 나타나서 하루에 두 시간, 도합 엄청난 스케줄을 펑크 없이 생방송으로 버틴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다. 그것은 무슨 힘이였을까? 미쳤기 때문에? 당시 TV가 휩쓰는 시기에 라디오가 살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굉장했는데, 내가 맡은 <여성 살롱: 임국희예요>는 교양, 오락, 연예, 정보, 시사, 문화 전반에 걸쳐 모두 수용된, 그때로서는 진보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 유명한 문화인, 예술인, 종교인, 교육자 등등으로부터 인터뷰라는 수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며 힘든 줄 몰랐고 인기 있는 연예인을 초대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 힘이 된 것은 청취자였다. 매일매일 우편배달 행랑에 꽂 채워진 편지, 분유통에 라면을 끓여먹고 편지를 쓴다는 대학

생, 밤마다 김치의 바다에 빠지는 꿈을 쫓다<sup>는</sup> 미국 청년과 결혼한 새댁, 힘없고 연약한 남녀의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편지들, 고국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1) 설악산 2) 소주 3) 임국희의 여성 살롱, 이라고 적어준 미국 이민 간 여학생의 편지 등등, 어느 것 하나도 잊을 수 없는 편지의 홍수가 나에게겐 자양분이고 정력제였다. 전 MBC 정동사옥 앞에 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필, 볼펜, 또는 먹물로 쓴 수만 가지 필체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 모두가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나는 이제 늙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어떤 판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시절이 그리우냐고? 그렇지 않다. 다만 꿈을 꿀 뿐이다. 방송 시간 임박한데 내가 탄 차는 광화문 부근에서 꼼짝 않는다. 이 진땀나는 꿈을...아, 악몽이지 뭐.

/한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 이야기 3

- 뱀새와 두더지



논어 양화(陽貨)편에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患得患失」(원편) “비루한 사람은 부귀를 얻기 전에는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患得)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걱정하나니(患失), 부귀를 잃을 까 걱정한 나머지 못하는 것이 없다.” 오늘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이권을 챙기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임금이 허유(許由)라고 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는데, 허유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뱀새가 숲속에 동지를 짓는다 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그 작은 배를 채우는데 한 바가지면 족하다. 나에게 천하란 아무 소용이 없다” 요즘 권력과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픈 말이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김성호(편제)8/31 박순호(관리)9/19 장수봉(편제)9/24 이세용(편제)9/25  
김영(편제)10/6 이동한(관리)10/8 김영근(편제)11/6

연회비

9월 김중오(12~13) 김중환(12) 박순호(11) 박병선(10~12)  
백명순(12~13)故이종희(06~11) 이창호(12~13)  
임동훈(12) 정태웅(11~12) 조동근(11~12) 주규만(12)  
10월 고성광(20,80세납부끝) 김금봉(21) 김춘규(12) 노홍식(12)  
오병석(11~12,80세납부끝) 유민환(12) 이재원(12) 장용택(12) 전병욱(12)  
주병도(15~21) 최문주(13~14,80세납부끝)

신규입회

08/31 金盛浩(편제) : 010-9199-5845 070-4225-0119  
강서구 화곡동 1151 우장산한화꿈에그린 101-103  
09/25 李世鏞(관리) : 010-8955-3748 02-3463-5453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42 도곡한신A 1-1301  
10/06 金 瑛(편제) : 010-3772-0064 031-967-706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907-903  
10/08 李東翰(관리) : 010-5287-8212 02-3461-8212  
강남구 도곡동 895-8 도곡한신A 2-601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편제|

김정수 고양시일산동구장항2동866 레이크폴리스1차 B-814  
김현철 고양시일산동구마두2동789 강촌마을 523-201  
박병선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한일타운 106-2301  
박오순 010-5305-5900  
박찬순 031-521-6084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17 건영리버파크 103-1205  
윤창호 070-7576-4657 인천시 서구 불로동 308 월드A 115-101  
천영숙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강선마을 1703-503  
최성근 010-8972-0386 영등포구여의도동36 롯데캐슬애플파이어 102-501

|보도|

고대석 서초구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A 102-2803  
박우정 서초구양재동11-74 현대테라하임A 102-602  
배귀섭 서초구 반포동 586-3 삼창골드빌리지 103-102  
이낙용 고양시일산동구장항2동866 레이크폴리스1차 A-504

|기술|

김학정 서대문구 남가좌1동 래미안2차A 104-1402  
박건철 010-5241-9707  
박영달 010-4387-3630  
이상원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A 260-1301  
이승재 010-6233-9749  
임정봉 은평구 불광2동 445-219

경조사향

경사

팔순 김준순(기술)12/5 민용기(편제)12/27 김재영(미주)1/1 송석두(보도)1/5  
박태환(관리)1/21 변현규(편제)1/29 박원희(편제)1/30  
고희 표찬일(편제)12/2 김규수(기술)12/3 신대근(보도)12/8 정충성(보도)12/22  
권항택(전주)1/10 한재춘(전주)1/27 이봉천(편제)1/29 이종구(관리)1/30  
회갑 김선혜(미주)12/23 정명환(대구)1/24 김상기(보도-12기)1/27

결혼

이상훈(관리)장남10/06 최종걸(보도)장남10/20 황중휘(관리)장남10/20  
곽재석(기술)장녀10/23 주병도(편제)장녀10/28 봉필규(편제)장남11/03  
양홍열(기술)차녀11/03 고성광(보도)아들11/17 박춘평(편제)장녀11/17  
전진권(편제)장남11/17 조복현(기술)장녀11/17 이진식(관리)장남11/24  
최준식(보도)장녀11/24

부음

이재인(대구)장모상9/17 김병문(관리)모친상9/21 진수웅(기술)장모상9/24  
김성호(편제)장모상10/01 이창식(편제)장모상10/01 옥은경(관리)모친상10/08  
송석철(관리)모친상10/10 김관중(업무)장모상10/22

- 이종복(관리) : 10월19일 새벽1시30분, 당진 방파제에서 혼자 바다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익사했다. 올해 59세. 차량 1대가 밤늦도록 주차해 있는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희로 신원이 밝혀지면서 별세가 확인됐다. 낚시광으로, 사우회가 주관한 올해 봄철 낚시대회에서 3등상을 받기도 했다. 1982년에 MBC에 입사했으며 총무부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에 명예 퇴직했다.  
- 장근복(관리) : 식도암으로 10월27일 별세했다. 올해 61세. 1978년 MBC에 입사해 주로 경리·예산부문에서 근무했다. 예산팀장과 기획국장·사업국장을 지냈으며 2004년부터 6년동안 MBC플러스미디어 사장을 역임했다.

전종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8 상록A 613-404  
홍기준 파주시 야당동 975 현대아이파크 308-1604

|업무|

신승훈 종로구 평창동 108 롯데캐슬로잔 101-1103  
오주환 강서구 등촌2동 등촌아이파크 124-1203

|관리|

강진택 010-5696-808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15-1 한진A 611-209  
김성한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307 꽃메마을 104-1304  
맹석기 010-7346-6028  
박한성 은평구 증산로15길 35-10 미성아파트 3-103  
손원록 010-3748-0712  
안병태 010-5282-3751  
임남규 광진구 구의강변로11, 6-805  
정경태 010-2646-3672  
하영현 수원시 장안구 읍전동 99-20 제일오피스텔 306호  
홍진표 010-8939-3930

|대구|

정승호 010-2051-3430

|대전|

신병호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휴먼빌 103-1902



## 이 사람!

전원주택살이 권태섭



**15년째 시골에서 농사** 800여평 밭에 그물을 쳐서 청둥오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과 먹거리를 놓고 다투지만 소작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줄 때는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 아담한 집에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은 직장인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꿈이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한 둘이 아니다. 집과 땅을 살만한 돈, 밭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아이들 교육문제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부지런한 성격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15년째 시골에서 밭을 가

꾸며 살고 있는 행복한 주인공, 바로 권태섭사우(기술)다. 1998년, IMF의 여운이 가시지 않을 무렵 명퇴를 하고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터를 닦았다.

차령산맥 기슭에 자리한 양백리는 그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으로,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 왔다가 우연히 그의 눈에 띈 곳이다. 홍보심의국 부국장을 끝으로 30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고도 50세라는 적당한 나이에 낙향한 그는 갖고 있던 돈을 털어 집 200평과 밭 250평을 마련했다.

밭일 거들고 마을어귀 눈길 끌며 다가갔더니 ‘서울아줌마네’를 입에 올리며 서서히 마음 열어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블루베리 오미자 도라지 잔대 더덕 대파 무 배추 등 30여가지 작물 키워

10평, 15평의 아담한 원목집 두 채를 붙여서 짓고 최대용량 3k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니 전기요금은 공짜. 꽃과 나무를 심고 지하수를 이용한 연못에 잉어도 몇 마리 넣었다.

집 짓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원주민들과의 교제. 아홉 가구에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인지라 이웃 사람들과의 친교에는 아내가 팔을 걷고 나섰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일년 가까이 매일 커피나 음료수를 권하며 대화를 나눴는가 하면,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서슴없이 일을 거들어 주었다. 부부가 매일 동네 어귀를 깨끗이 쓸었고 눈이 온 날이면 새벽부터 길을 쓸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달려갔다.

부부의 이런 노력에 마침내 과묵한 충청도 사람들의 입에서 ‘서울 아줌마네’에 대한 칭찬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동네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없을 때 낯선 사람이 우리 집 근처를 열

쐈거리면 주민들이 막 야단을 쳐서 쫓아 보낸다구. 이젠 서로 방법대원 해주는 거지” 250평으로 시작한 밭이 800평으로 늘어난 건 그의 부지런함을 눈여겨 본 주민들의 권유로 주변 밭을 조금씩 사들인 결과다. 그의 밭과 주변에는 30가지가 넘는 나무와 작물들이 자라고 있다.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등의 유실수 외에도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도라지, 잔대, 더덕 등과 파, 상추, 시금치, 배추, 무, 고추 등등 없는 게 없다.

기술직으로 입사했던 경력답게 기계 다루는 데 익숙한 그의 집에는 독일제 감 따는 장대와 소형 트레일러를 비롯 한 크고 작은 농기계가 있는데 모두 손수 고치고 다룬다. 밭 가운데 수심 2미터 넘게 연못을 파고 참붕어를 사다 넣었더니 어느 날인가 청둥오리떼가 무리지어 날아와 할 수 없이 그물을 쳤다.

먹는 것으로 동물들과 다투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지어놓은 작물을 멋대로 먹어 치우는 고라니와 멧돼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튼튼한 울타리는 필수다. 부부가 열심히 농사지는 작물을 두 아들이 가족들과 아는 이들에게 전해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그가 손수 뽑아 건네 준 대파의 천연향이 돌아오는 승용차 안을 가득 채운다. 아홉 채의 집 가운데 혼자 살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빈집이 두 채,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하나 더 있으니 언제 또 빈집이 될지 모른다. 집집마다 감은 주렁주렁 달려 있지만 일손이 없어 따지 못하는 실정은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 동네 감 따주는 것도 그의 일 중의 하나다.

“방에 누워서 소리만 들어도 어느 집 경운기인지 다 안다구. 그 만큼 동네사람 다 된 거지 뭐.” 어릴 때부터 키워 온 꿈-조용한 곳에서 식구끼리 오순도순 살며 한가한 노년을 보내려는 당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래저래 더 바쁜 농촌생활을 하게 된 그의 얼굴에 그러나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부럽다.

글/ 김상옥 사우회 이사

## 회원동정



**최창섭(ANN)**  
성경녹음 재능기부, CD무료제공

前아나운서국장.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1년 여에 걸쳐 성경을 mp3 파일 CD 10장에 녹음했다. 필요로 하는 회원들 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연락처 010-9105-1373  
e-mail cschoi11@hanmail.net



**김용빈(기술)**  
한국정통침구학회 부회장으로 선출

MBC사우회부회장. 한국정통침구(鍼灸)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침과 뜸의 홍보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한편 봉사활동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희(관리)**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강

前경영본부장. 9월부터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강의하고 있다.



**김철호(보도)**  
‘명인명칭의 예술과 사랑’ 방송기자저널에 기고

(주)미디어토스대표, 前해설위원. 지난 9월부터, 판 소 리 에 얽힌글 「명인명칭의 예술과 사랑」을 방송기자클럽 회보인 방송기자저널에 연재하고 있다. 김사장은 오랫동안 판소리 등 국악 관련서적과 공연을 섭렵하고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는 등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소리(唱)실력도 수준급이다.



**유희근(보도)**  
RCY(청소년적십자)후원회 부회장으로 선임

前전주MBC사장. 국내 중-고-대학생 20만명의 적십자활동을 후원하는 ‘청소년 적십자 후원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RCY(Red Cross Youth)라 부르는 청소년 적십자는 자기 희생과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 그리고 국제친선을 근본정신으로 현재 175개국에서 1억명이 활동하고 있다.

## ‘가지 않은 길로’를 주제로 두번째 개인전



가보지 않은 길 구상화 31점 전시  
11.8~24 동송동 샘터갤러리

前문화방송사장. 2008년 10월에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진 이후 4년만에 ‘가지 않은 길로’를 주제로 한 두번째 개인전을 11월 8일부터 24일 까지 서울 중로구 동송동 샘터갤러리에서 갖고 있다. 4년전 1차 전시회의 작품 대부분이 추상화였음에 반해 이번엔 그가 가보지 않은길인 구상화로 모두 채웠다. 강원도와 서울 화실을 오가면서 4년동안 그린 ‘해뜰무렵’ 등 31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월요일은 휴관.

연락처는 전화 02- 3675-3737

## 김수량(기술)

공주영상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로 교명 변경 본회회장·공주영상대학교총장. 재직하고 있는 공주영상대학교가 과학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영상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 성경환(ANN)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교통방송 대표로 직함 변경 서울교통방송본부장. 10월5일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따라 ‘교통방송 대표’로 직함이 변경됐다.

## 원자력 안전체험학습과 문화유산방문

### 원자력 안전체험학습과 문화유산방문

이번 월성원자력발전소 견학과 문화유산 방문과정에서 사우회 김수량회장, 대전MBC 김종국사장, 포항MBC 강성주사장 등이 현장을 방문해 격려해 줬다.

1. 대전국제원자력학교-원자력은 효율성이 뛰어난 에너지원인 반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제작,건설,운영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정성을 확인,관리한다는 내용의 강의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수강하면서 여러 분이 안정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과 열성을 보여 주었다.
2. 양동(良洞)마을-경주시 강동면 북쪽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유서깊은 마을로 2010년 7월31일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한민국의 6개소 국가 지정 전통마을 중 마을의 역사와 규모 및 보존상태, 뛰어난 건축양식과 조경학 등의 면에서 가장 우수한 가치를 지닌 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3. 감은사지(感恩寺址)-감은사는 신라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세우기 시작,신문왕2년(682)에 완성한 절이다.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지낸 뒤 부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 밑에 특이한 구조로 된 공간이 만들어졌다.금당밑에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3층석탑은 높이가 13.4m 로 규모가 장대하다.
4.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체르노빌원전사고,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듣고 공감했다.
5. 주상절리(柱狀節理)-울산~포항 길에 있는 와상(臥狀) 주상절리는 특이한 모양이다. 주상절리의 방향은 대체로 수직방향으로 발달하게 되지만 이곳절리는 수평으로 부채꼴같이 누워있는 특이한 형태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며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한다.

- 김희을(기술)